MG손보 매각 수순?… 노조 "증자가 경영정상화 해법"

노조, 경영정상화 촉구 기자회견
"당기순익 53억… 만년적자 탈출"
대주단, 매각주관사 선정할 듯

박차훈 17대 새마을금고중앙회장

지난해 12월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임시 이사회를 개최하고 경영난에 시달리던 MG손해보험에 대한 유상증자 안건을 부결시켰다. KDB생명 등 재정건전성 악화에 시달려 온 다른 보험사들이 최근 최대주주로부터 자금을 받아 영업 정상화의 토대를 마련한 것과는 다른 행보로 시장에선 이에 따른 MG손보 매각설이 다시금 불거졌다.

MG손보 사무금융노조는 5일 오후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새마을금고중앙회 본사 앞에서 MG손보의 경영정상화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새마을금고중앙회의 증자 안건 부결은 보험사의 재무건전성 기준인 지급여력(RBC)비율 유지를 위협하는 졸속 결정"이라며 "700여 명의 노동자들과 수십 만 계약자의 믿음을 저버린 경영 방기 행위"라고 규탄했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대주주 적격성 문제로 중간에 사모펀드 운용사 자베트파트너스를 끼고 MG손보를 간접 소유하고 있다. 사실상의 MG손보 최대주주인 것이다. 자베즈제3호유한회사와 새마을금고중앙회는 MG손보의 지분을 각각 93.93%, 6.07% 보유하고 있다.

MG손보 노조는 "새마을금고중앙회는 펀드 지분의 99.97%인 3531억원과 후순위채권 300억원까지 서민의 피땀 어린 3831억원을 MG손보에 투자하고 있다"며 "때문에 금리인상에 따른 여파로 악화된 RBC비율 개선을 위해 증자만 한다면 충분히 경영정상화를 통해 회사를 살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 MG손보는 지난 2013년 출범 첫해 순손실 393억원을 기록하는 등 줄곧 적자를 기록해 왔다. 4년 내내 순손실을 내며 자본의 상당 부분을 까먹는 등 재무상태가 좋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더해 지난해 9월 말 기준 보험금 지급여력을 나타내는 RBC비율은 현재 115.61%로 업계 최하위 수준이다. 금융당국의 RBC비율 권고 기준은 150%로 업계 평균은 257.2%다.

당시 시장에선 새마을금고중앙회의 MG손보 증자 요구 거절에 대해 "더 이상의 지원은 없다"는 의견을 간접적으로 피력한 것으로 봤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과거 MG손보의 전신인 그린손해보험을 2013년 1800억원에 인수한 뒤 4년 간 총 다섯 차례에 걸쳐 2300억원에 이르는 막대한 자금을 지원해 왔다.

다만 당장 새 보험회계기준(IFRS17)의 도입을 준비하면서 MG손보의 RBC비율은 계속 하락할 것으로 전망되는 바 새마을금고중앙회는 MG손보의 경영정상화를 불투명하게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MG손보 노조는 "MG손보는 그간 손실을 메꾸기 위해 노동자들의 구조조정과 건물 매각 과정 등을 거쳤다"며 "노동자들이 피땀 흘려 일해 지난해 당기순이익은 53억원을 달성하는 등 만년 적자에서 탈출했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이어 "최근 박차훈 새마을금고중앙회장이 새롭게 당선된 바 즉각적인 증자 단행 만이 MG손보 경영정상화의 유일한 수단임을 알린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새마을금고중앙회 등 MG손보 대주단은 회사의 매각 주관사 선정에 한창이다. 최근 MG손보 매각에 다른 제안서를 검토하고 조만간 주관사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대주단은 증자 등 투자유치는 계속 진행하면서 매각 절차도 함께 밟을 계획인 것으로 확인됐다.

매각 대상은 자베즈제2호유한회사(93.93%)와 새마을금고중앙회(6.07%)가 소유한 MG손보 지분이다. 매각가는 4000억원 안팎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봉준 기자 bj35sea@metroseoul.co.kr

가상통화 피싱 급증… 피해금 2423억원

금감원, 피해액 전년比 26% 증가
기존 대포통장 대신 가상통화 악용

〈2017년 보이스피싱 및 대포통장 현황〉 (단위: 억원, 건, %)

구 분			2016년(A)	2017년(B)	증감(율)(B-A)	
보이스피싱	대출빙자형	피해액	1,344	1,805	461	(34.4)
		피해건수	37,222	42,248	5,026	(13.5)
	정부기관사칭형 등	피해액	580	618	38	(6.6)
		피해건수	8,699	7,700	△999	(△11.5)
	합계	피해액	1,924	2,423	499	(26.0)
		피해건수	45,921	49,948	4,027	(8.8)
대포통장		건수	46,626	45,422	△1,204	(△2.6)

/자료=금융감독원

가상통화를 악용한 신종 수법이 등장하면서 지난해 보이스피싱 피해규모가 크게 늘었다.

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17년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2423억원으로 전년 대비 26% 증가했다. 가상통화가 피해금 인출수단으로 악용되면서 대출빙자형 피해가 크게 늘었다.

지난해 하반기에만 가상통화를 이용한 보이스피싱 피해규모가 14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건당 피해금은 1137만원으로 전체 보이스피싱 건당 피해금 485만원의 두 배가 넘는다.

사기범들은 피해금을 현금화하기 위해 기존 대포통장 대신 가상통화를 악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상통화는 금융권의 의심거래 모니터링이나 자동화기기 인출 제한 등이 적용되지 않아 거액의 출금이 가능했고, 자금을 추적하기도 어려웠다.

반면 대포통장 발생 건수는 4만5422건으로 전년 대비 2.6% 감소했다. 은행권의 이상거래감지시스템(FDS)와 모니터링 강화 등으로 소폭 줄었다.

특히 은행권에서는 대포통장이 큰 폭으로 감소했지만 풍선효과로 새마을금고나 우체국 등 제2금융권에서는 증가했다.

/안상미 기자 smahn1@

한화생명, 보험금지급능력 'AAA' 등급

국내 3대 신용평가기관서
11년 연속 최고등급 유지

차남규 한화생명 부회장

한화생명은 국내 3대 신용평가기관인 한국기업평가, NICE신용평가, 한국신용평가로부터 보험금지급능력 최고등급인 'AAA'를 획득했다고 5일 밝혔다.

한화생명은 지난 2008년 2월 한국기업평가와 NICE신용평가로부터 신용평가 AAA를 받은 이후 11년 연속 최고등급을 유지해 오고 있다.

한화생명은 우수한 시장지위 및 안정적인 영업기반, 자산건전성, 자산운용이익률 및 수익성 지표의 점진적 상승 측면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영업 지표에서는 오랜 업력에 기반한 우수한 설계사 인력관리와 브랜드 이미지를 바탕으로 판매조직의 안정성이 높다고 평가 받았다. 13월차 설계사 정착률은 우수한 수준을 보이고 있고 영업효율성을 나타내는 보험계약 유지율도 업계 평균 수준으로 양호하다.

상품 측면에서는 보장성, 저축성, 특별계정으로 고르게 분산된 포트폴리오를 보이고 있는 점이 사업다각화 측면에서 긍정적인 요인으로 평가받았다. 특히 보장성보험 비중이 상승하고 있는 점은 보험료 수입의 안정성과 보험상품믹스의 질적측면에서 긍정적인 요소라고 분석됐다.

일반계정 기준으로 보장성 보유계약 비중은 지난해 9월 기준 79.5%로 높은 수준이다.

자산운용 부문에서는 다양한 대체 투자자산 발굴 등 자산운용 다각화 노력을 통해 업계 평균 이상의 운용자산이익률이 유지되고 있고 회사의 기본적인 수익성 지표 또한 양호하게 유지되고 있다고 평가 받았다. 향후 운용자산이익률 상승과 이차 역마진 감소가 예상됨에 따라 수익성은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봉준 기자

KEB하나銀, '12.5kg 라지골드바' 판매

가로 25.4·세로 5.5·높이 4.2㎝
은행권 최초 단독… 영업점서 주문

KEB하나은행은 기존에 판매 중인 골드바 상품(1㎏·100g·10g)외에 중량 12.5㎏의 라지골드바(Large Gold Bar)를 은행권 최초로 단독 판매한다고 5일 밝혔다.

라지골드바는 가로 25.4㎝, 세로 5.5㎝, 높이 4.2㎝의 직육면체 모양의 런던금시장연합회(London Bullion Market Association)의 표준화된 규격이 적용되는 상품으로 KEB하나은행 영업점 창구에서 주문하면 최대 4영업일 이내에 수령할 수 있다.

최근 가상화폐 이슈 등 세계 경제의 예측 불가능성이 증가했고, 대내적으로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 및 보유세 개편까지 예고돼 전통적 안전자산인 골드바에 대한 관심과 자산관리 포트폴리오 조정에 대한 니즈가 어느 때보다 증가한 상황이다.

KEB하나은행은 신규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기존 시중은행에서 판매됐던 최대 중량 1㎏ 한도 내의 골드바를 넘어 라지골드바 판매를 기획하게 됐다.

KEB하나은행 골드바 담당자는 "실물자산 선호 고객들의 포트폴리오 확장 수요에 맞추어 은행권 최초로 라지골드바 상품을 출시했다"며 "평소 안전자산인 금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던 손님들은 이번 기회를 통해 골드바 구매를 고려해 볼 만하다"고 추천했다.

/김문호 기자 kmh@

8일 법정 최고금리 24%로 인하
혜택 소외 기존대출자 '금리인하 요구권' 활용

오는 8일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기존 27.9%에서 24%로 낮아진다. 신규 대출부터 낮아진 최고금리가 반영되고, 기존 대출은 만기도래분을 갱신하거나 연장할 때 적용된다.

금융감독원은 5일 최고금리 인하혜택에서 소외되는 기존 차주는 대환대출이나 금리인하 요구권 등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금리인하 요구권은 대출자가 신용등급 상승이나 승진 등 신용상태가 개선된 경우 금융회사에 대출금리를 낮춰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제도다. 신용평가회사(CB) 홈페이지에서 4개월에 한 번씩 자신의 신용등급을 무료로 조회할 수 있다.

연체없이 정상적인 거래를 지속한 경우도 금리인하 요구가 받아들여 질 수 있다. 기존 대출자라면 지난달 26일부터 시행 중인 저축은행 업계의 자율적 금리부담 완화 방안도 눈여겨 봐야 한다.

이에 따르면 최고금리 24%를 넘는 저축은행 대출을 받은 사람은 기존 대출을 만기 전에 갚을 때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해주고 있다.

/안상미 기자

우리은행, 연 최대 7.2% '챔프 복합예금'

수익률 최저 1.2%… 원금 보장

우리은행은 오는 9일까지 주가지수연동예금 '우리Champ(챔프)복합예금 18년-2호'를 판매한다고 5일 밝혔다.

'우리Champ복합예금 18년-2호'는 삼성전자 보통주, 코스피200지수 등 기초자산의 변동에 따라 이자율이 결정되는 예금이다.

만기 해지 시 원금이 보장되고 최고 연 7.2%의 수익률과 최저 연 1.2%의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다. 다만 중도해지할 경우는 중도상환 수수료로 인해 원금 손실이 일부 발생할 수 있다. 가입기간은 1년이며, 삼성전자 보통주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삼성전자 상승형, KOSPI200 상승형, KOSPI200 양방향형 구조로 총 3가지 유형으로 구성돼 있다.

'삼성전자 상승형'은 가입기간 중(기준지수결정일~만기지수결정일) 기준지수 대비 지수가 20%를 초과 상승한 적 없으면 주가지수 상승률의 30%를 연환산하여 최고 연 7.2% 이자율을 지급받는다.

또 저축기간 장중 20%를 초과하여 상승한 적이 있거나 만기지수가 기준지수 대비 하락하더라도 연1.2% 수익률이 보장된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원금이 보장되면서도 주식시장의 변동에 따라 일반 정기예금 대비 고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상품"이라며 "또 최저 1.2%의 이자율을 보장하여 상품 안정성을 높였다"고 말했다.

/채신화 기자 csh9101@